



투타 겸업 '덕수고 오타니' 엄준상, MLB 애리조나와 150만 달러에 계약
투타를 겸업하는 유망주 엄준상(덕수고)이 계약금 150만 달러(약 22억6000만 원)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하면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7일(한국시간) 열린 알제리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전반 17분 선제 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메시, 해트트릭... '라스트 댄스' 화끈한 첫 스텝

알제리와 1차전 '원맨쇼'...3-0 승 주역
16번째 골로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
5개 대회 득점·6개 대회 출전 기록 잔치



말 그대로 '축구의 신'의 품격 그 자체였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8)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로 기억될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고트'(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선수)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캡틴' 메시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의 캔자스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제리

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해트트릭 원맨쇼를 펼치며 3-0 승리를 완성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함께 4-4-2 전술의 투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메시는 전반 17분 선제 결승 골에 이어 후반 15분 추가 골과 후반 31분 썰기 골까지 혼자 책임지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후반 35분 니코 파스와 교체됐다.

80분을 뛰면서 6차례 슈팅을 시도한 메시는 4차례 유효 슈팅으로 3골을 뽑아내는 경이적인 결정력을 과시했고, 소파스코어는 메시에게 '평점 10'을 매겼다.

이날 메시는 선발 출전만으로도 월드컵 역사의 대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2006년 독일 대회부터 월드컵 무대를 밟은 메시는 역대 처음으로 6번째 월드컵 그

라운드를 밟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월드컵 본선에 5번이나 참가한 선수는 메시와 '영원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비롯해 로타어 마테우스(독일), 잔루이지 부폰(이탈리아), 안토니오 카르바할, 라파엘 마르케스, 안드레스 과르다도, 기예르모 오초아(이상 멕시코)가 있었다.

5개 대회에서 모두 한 경기라도 뒀던 선수는 메시, 호날두, 마테우스, 카르바할, 마르케스, 과르다도 등 6명이고,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메시와 호날두가 역대 처음 월드컵 무대를 6번째 밟을 선수로 예약했다.

이런 가운데 메시가 이날 알제리전에 선발로 출전하면서 역대 가장 먼저 6개 대회에서 모두 경기를 뒀던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호날두는 18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첫 경

기를 치를 예정이라 첫 월드컵 6개 대회 출전 기록을 메시에게 내줬다.

메시는 이날 다양한 기록을 양산했다. 그는 6개 대회(2006 대회 1골·2010 대회 0골·2014 대회 4골·2018 대회 1골·2022 대회 7골·2026 대회 현재 3골)에 참가해 2010년 남아공 대회를 제외하고 5개 대회에서 득점을 뽑아내며 호날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5개 대회 득점자로 이름을 남겼다.

더불어 이날 3골을 뽑아낸 메시는 월드컵 통산 16골을 뽑아내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와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올랐고, 조만간 단독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특히 38세 357일인 메시는 호날두가 2018년 대회 때 작성했던 월드컵 역대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33세 130일)의 기록도 경신했다.

연합뉴스

내일 멕시코전 '손톱' 대신 '손오공'?

<손흥민+오현규 공격>

홍명보 감독, 오현규 선발 카드 만지작
손흥민은 원래 포지션 왼쪽 말을 수도

홍명보호가 '조 1위 결정전'이 될 멕시코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의 동반 선발 출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체코전 선발 명단에 오른 정예가 큰 변화 없이 멕시코전에도 선발 출격할 거로 보인다.

다만, 공격진은 홍 감독이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체코전 후반 교체 투입돼 역전 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이번엔 선발 출격시키고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로 배치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왔으나 원래 포지션은 왼쪽 공격수다.

대표팀에는 그 외에도 황희찬, 이강인 등 풍부한 2선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는, 이른바 '손톱' 전술이 자주 가동됐고, 체코전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오현규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그는 홍명보호 공격수 중 소속팀에서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이기도 하다.

이런 오현규가 확실하게 '월드컵 경쟁력'까지 증명해낸 만큼 홍 감독로서는 손흥민과 오현규의 '공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손흥민과 오현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치른 멕시코와 평가전(2-2 무승부)에서 나란히 골 맛을 보기도 했다. 당시 오현규가 선발 출전했고,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다.

연합뉴스

음바페·홀란도 나란히 2골씩 '이름값'

14골로 프랑스 국가대표 최다 골 경신
'28년 만의 본선' 노르웨이에 승리 안겨

세계 최고의 골잡이들이 같은 날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화끈한 골 잔치를 벌이며 뜨거운 득점왕 경쟁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27)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대회 조별리그 I조 1차전에서 혼자 두 골을 터트리 프랑스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음바페의 통산 A매치 득점은 58골, 월드컵 득점은 14골로 불었다.

올리비에 지루(57골)가 보유했던 프랑스 국가대표 통산 최다 골과 쥐스트 퐁텐(13골)이 세운 프랑스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음바페가 이날 모두 갈아치웠다.

노르웨이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5)도 득점포를 폭발했다. 홀란은 이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같은 조 1차전에서 선제 골과 결승 골을 책임지고 노르웨이에 4-1 완승을 안겼다.

홀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득점왕을 세 차례(2022-2023, 2023-2024, 2025-2026시즌)나 차지한 당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지만, 월드컵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르웨이가 이번 대회 전에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것은 2000년생 홀란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프랑스 대회였다. 홀란은 유럽 예선 8경기에서 무려 16골을 넣으면 노르웨이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다. 유럽 예선 전체 득점 1위였던 그는 본선 데뷔전에서도 멀티 골을 터트리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다.

연합뉴스